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26℃/32℃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음력 9월 20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910호



“학교 성교육 표준안, 현행대로 유지해야”

교총, 교육부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논란에 대한 입장 전달

지난 7월 일부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동성에 관련 수업에 대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최근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운수, 이하 교총)가 19일 현재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육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 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에 대해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체계 하에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건의했다.

교총은 흡연자의 인권을 예로 들며, 흡연자의 인권을 존중하되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금연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교육은 후속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가치를 선별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사 개인의 성인식이나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며 일부 단체의 표준안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또 건의서에서 교총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족은 양성 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함에 따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양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생활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관계의 전제 조건으로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총이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 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성관계 경험의 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체의 발달로 왜곡된 성지식과 정보의 범람에 따라 기존의 처방중심의 성교육과

부분적·산발적·즉흥적 교육으로는 올바른 대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또, 교사 개인의 성인식과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이 달라져 일관성 있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한계와 함께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영어수업 시간에 퀴어(queer, 동성애자)촉제관련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가하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5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면서

“커밍아웃” 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내용은 일 없었으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운영 시 유의사항(지침)’에도 양성평등의 관점이 유지되도록 하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적시되어 있다.

교총은

“일부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성 관계권리를 주장하고, 일부 교사들이 ‘결혼만이 아닌 동거나 동성 간 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적어도 학생 신분으로는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학생 개인에 따라 책임 있는 성 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지도 등을 명시한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불어 교총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헌법과 규정을 넘어서서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성 소수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장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또 “정부도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성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유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앞으로 4년, 잘부탁 드립니다”

NCKK 차기 총무로 선출 된 이홍정 목사가 최근 열린 제65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NCKK 신임 총무에 이홍정 목사

“큰 두려움으로 찾아온 사랑... 신뢰 부탁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19일 낮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65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무로 이홍정 목사(예장통합)를 선출했다.

1956년 11월 9일 출생한 이홍정 목사는 배재고와 서울대 사범대, 장신대 신대원(M. Div), 영국 버밍엄대 인문학부 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Ph.D. in Theology/신교신학 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이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은곡교회, 할렐루야교회, 영락교회, 무학교회 등에서 사역했으며, 예장통합 총회 전도부 간사, 영국 Selly Oak 대학교 동북아시아선교학연구소 소장, 예장통합 총회기획국장,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정의 국제문제 개발과 봉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필리핀 아태장신대 총장과 한일장신대 선교학과 전임교수로 있었으며, 예장통합 총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티(WCRC) 실행위원으로 있다.

실행위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신임 총무를 선출했다. 전체 실행위원은 모두 92명으로 이 중 과반은 47명인데, 투표에 참여한 실행위원 숫자는 59명으로 이 가운데 찬성 56표, 반대 3표로 이홍정 목사가 무난하게 과반을 넘겨 신임 총무로 선출됐다.

이홍정 목사는 투표 직전 소견을 통해 “몸이 건강해야 지체가 건강하다는 마음을 갖고 교단 실무자로 일할 때 NCKK가 잘 되어야 교단이 잘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큐메니칼 정신이 갖고 있는 일치와 친교의 영성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면서 “NCKK 안에 협의적 친교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이 목사는 “현장과 지역교회를 토대로 지역 예큐메니칼을 강화하고, 한국교회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예큐메니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합

의적이며 책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적 과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 이야기 했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큰 두려움으로 찾아온 사랑이지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귀한 사역을 감당 하겠다”면서 “신뢰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총무로 선출된 후 이 목사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시대적 상황에 복음으로 응답하면서, 예언자적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생애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겠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NCKK는 오는 11월 20일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오늘 실행위에서 총무로 선출된 이홍정 목사는 이 자리에서 총대들에게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인준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김영주 목사에 이어 총무로서의 4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홍정 목사 총무 선출 과정 중 주목할 만 한 점은 동성애 문제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 9월 25일 ‘총무후보 추천 인선위원회’ 제65회기 3차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선위원들은 이 목사에게 ‘기독교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관해 NCKK와

회원교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의 대안’ 등을 물었다.

이에 이 목사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현상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부각해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소통의 과정을 중시하며 교단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일이 협의회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하나님의 목회 차원에서 소수자 문제에 대해 접근 하겠다”고 했다.

인선위원들은 “성소수자 문제가 현재 혐오와 배제 현상이 바람몰이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NCKK 지도부 입장이 어려울 듯하다”고 우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의견을 이 목사에게 피력했다. 더불어 “성소수자 문제는 찬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출한 소견서 내용을 신뢰하니 그대로 노력해 달라”고 이 목사에게 요청했다.

다만 이홍정 목사가 소속된 예장통합은 지난 2017년 제102회기 총회에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교단 차원의 결의로 만들어냈던 바 있다.

박용국 기자

한교연 “통합 파기시 12월 중 총회 개최”

임원회 열고 교단장·총무 간담회 내용 토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 회의실에서 제6-8차 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가졌던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자 간담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추진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교단장 총무 법인이자 간담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려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대표회장 이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열리게 됐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교연이 교

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기연을 창립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12월 5일로 예정된 총회까지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임원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들에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한교연과 교단장회의가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정관 문제로 인해 정관 등에 모든 문제를 임시로 받고 폐회했으므로 그 후에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합의된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장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교연 법인을 사용하기로 한 이상 법인 인수를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교연은 이미 없어진 단체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11월 17일까지도 시한을 정해 모든 합의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이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만일 합의되지 못할 경우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정관에 따라 한교연 제7회 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기총과의 통합논의와 관련해 제6-1차 임원회에서 선임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가 통합 논의를 진행하되 교단장회의측에 시한으로 못 박은 11월 17일까지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교단장회의와의 통합이 파기될 경우 그 이후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3일 개최된 교단장 총무 법인이자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 임원회 결의사항으로 결정된 내용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들이며, 다만 “이상의 사항들이 합의될 때까지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기연 공동대표회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결의했다.

박용국 기자

한장총,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선거관련 공고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이하 한장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지난 18일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35대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선거관련 일정 및 공정선거에 대한 기준을 결의했다.

선거관리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개최에 배 설교에서 “한장총의 지도자는 하나님 이 세우시는 자리인 만큼 선거위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선관위는 서기에 최정봉 목사를 선출하고 선거일적으로는 10월 18일부터 한장총 홈페이지와 회원교단 총회에 공문으로 공고를 하기로 결의했

다. 더불어 회원교단 발행 신문 지상으로 도 공지해 줄 것을 회원교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는 금지사항으로 금품 및 향음제금, 집회초청, 후보자간 답답 할 경우 심의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기로 했다. 다만 SNS를 통한 정책 홍보는 허용하기로 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장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11월 7일에 후보자 자격심의를 하고, 1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은 추대하고 상임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나라와 민족 걱정하는 한국교회가 일어난다”

17개 광역시 ‘대한민국 오천만 서명포럼’ 및 기도화·美300명 목회자 초청 통일포럼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17개 광역 도시별로 ‘대한민국 오천만 서명포럼’ 및 ‘비상구국 기도회’가 열린다. 특히 ‘미국 상원의원 멘토목회자 초청 통일포럼’도 준비된다. 19일 CCMM에서 열린 ‘국민 심포지엄’(준비위원장 전광훈 목사)은 이러한 대장정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먼저 포럼과 기도회를 준비하는 ‘오천만 서명운동본부’(이하 본부)는 “90년도 들어와 386세대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를 혼돈시키고 국민들을 속여 일시에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본부 측은 ▶한동안 북한의 주체사상에 속아 동조했던 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전향할 것을 ▶북한의 왜곡된 역사에 빠진 자들은 잘못된 역사관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로 돌아올 것을 ▶정부는 잘못된 경제 포퓰리즘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 것을 ▶문 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전제된 평화협정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천만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자유통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별히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은 ‘대한민국통일포럼 추진위원회’(이하 통일포럼

추진위)를 구성, 오는 2018년 4월 11~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복음통일을 위한(50개주 300명) 미국 상원의원 멘토목회자 초청 통일포럼’을 개최한다.

대표대회장으로는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장관, 전 국정원장)가, 준비위원장으로는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섬기며, 공동대회장으로는 예상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와 예상합동 총회장 전계현 목사 등 국내 22명의 현지 총회장들이 섬길 예정이다.

통일포럼 추진위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종북 좌파,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 주의자들로 인해 일시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박한 처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그들은 헌법까지 개정,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려 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건국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했던 한미동맹이 위험한 상태에 왔다”고 했다.

때문에 통일포럼 추진위는 “한국교회 1천 2백 만 성도가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함으로 선교국가를 세우, 중국의 동부상성을 복음화하고, 세계선교를 이루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50개 주 대표 목회자들을 초청, 서울에서 복음통일 포럼을 개최하려는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한 국내대회도 사전에 준비된



19일 CCMM에서 열린 ‘국민 심포지엄’에서 준비위원장 전광훈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다. 오는 11월 16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0여 명을 초청, 나라와 민족, 그리고 준비되는 통일포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성령세례에 대해”란 주제로 열린 국민 심포지엄에서는 손다윗 교수(안양대 신학대학원)와 전광훈 목사, 고충진 목사(한세대 신대원 교수), 이예경 대표(애니선교회), 김승규 장로, 김철홍 교수(장신대) 등이 자선에 체험한 성령과 은혜에 대해 간증도 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특별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 고백

선언’도 선포됐다. 이는 니케아 회의(325)로부터 시작해 웨스트민스터 고백(1647)까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됐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세례를 부어 주셨다”(8조)

“이 성령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뤄진다”(9조) “성령세례에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10조) 등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용국 기자

“웨슬리안은 이생에서의 ‘완전’에 대한 희망 믿는다”

서울신대·OMS선교회 ‘제15회 카우만 기념강좌’

서울신대와 성결교회 OMS선교회가 크리스 바운스 교수(美애즈베리대 신학과 학과장)를 초청, ‘제15회 카우만 기념강좌’를 최근 두 차례 개최했다. 그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성결운동에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를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크리스 바운스 교수는 먼저 존 웨슬리 신학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완전성화의 교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웨슬리와 18세기 메소디스트 부흥은 완전성화가 언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체험되는가에 대해 ‘먼 길’과 ‘지름길’이라는 두 개의 다른 궤적을 설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웨슬리의 ‘먼 길’을 따르는 교단들은 대개 연합감리교회, 영국감리교회, 흑인감리교회이다. 전통적으로 ‘지름길’을 옹호하는 교회는 웨슬리안교회, 자유감리교회, 나사렛교회, 그리스도인 연합 그리스도교회, 그리고 구세군이다. 바운스 교수는 “역사적으로 후자 단체들은 ‘성결’ 교단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신학적 선택이 19세기 미국성결운동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라 했다.

성결운동은 부흥, 캠프미팅, 신회집단, 찬송 그리고 인쇄물을 통해서, 그들은 미국과 세계의 일반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완전성화의 교리와 체험을 이루었다. 그러나 바운스 교수는 “성결운동의 ‘지름길’ 메시지는 시련기를 맞았으며, 이제는 ‘먼 길’에 의해 웨슬리안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신학적으로 ‘지름길’에 대한 성결운동의 가르침은 교정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수용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다만 바운스 교수는 “죄의 권세와 본

성으로부터 구원이 어떻게 성별과 믿음을 통해 구현되는가에 대한 그들의 후-펠라기우스적인 대답은 부족하기에, 존 웨슬리의 후-아우구스티누스적인 능동적인 은혜로 교정되어야 한다”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통해, 이 ‘지름길’이라는 ‘신-성결’ 신학은 교리와 체험에서 ‘먼 길’의 비관주의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운스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역사적인 웨슬리안 가르침은 초기 사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 신학의 주된 강조점과 함께 한다”면서 “성화에 대한 웨슬리안 교리는 처음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바운스 교수는 이것이 기독교 일반, 특히 회랍과 라틴 교회의 발원까지 뻗어있는 교리적 혈통을 가지고 있기

에, “우리 웨슬리안 교단들은 이생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희망을 믿을

케다란 이유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서울신대와 OMS는 2003년부터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정신을 발굴하고 계승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매년 가을마다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측은 “강좌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성결교회의 소중한 유산과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웨슬리안의 핵심 교리인 성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도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닐 기자



송실대 제공

조은식 기자

송실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의 자세’ 학술 심포지움 개최

송실대학교(총장 황준성)가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총동문회(회장 심영복)와 교수협의회(회장 조문수) 주관으로 19일 오후 2시부터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송실대 총동문회와 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심포지움으로써, 반기문 전 총장의 특강을 비롯해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이정철(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송실대 학술 심포지움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정배 교수부장,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최보선 초빙교수, 송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특강을 전하고 있다.

대 사회과학대학장 박창호 교수, 송실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문수 교수 등이 참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 웹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3 월드비전을 설치하세요.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에 담긴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과 전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을 사는 지역을 알람하여 아동의 건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1회 아동에게만 보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1 후원금의 후원금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 의료, 교육, 교육 및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2 후원금으로 한 아이의 밝고 밝은 삶을 지켜주고 한 마을의 희망을 줍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을 받은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싫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무 약해지셨고 너무나 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에 처할 때 약함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8,9).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6:5)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을 예언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약함”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10). 십자가 복음의 첫째 특성은 “약함”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착함”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착함”의 사람이 되셨습니다(요:1:14). “착함”이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특성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라는 말씀은 하나님인 말씀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1). “너희를 위하여”라

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보다 놀라운 “착함”은 이 세상과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구유에 탄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8:3) 세상에 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일 보다 놀라운 “착함”은 이 세상과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요1:14) 문둥병자들을 어루만지시며 병을 고쳐주셨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간음 현장에서 집된 죄인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마8:3).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화하지 아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8:11). 거룩 거룩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과 병자들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일 보다 놀라운 “착함”은 이 세상과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행10:38)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 설교에서 제자들더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눅23:34). 이 보다 놀라운 “착함”은 이 세상과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착함”입니다.

성경은 “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도 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을 기록하지만 사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한 것은 이름없는 사람들의 “착한” 삶이었을

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준비가 옴바에 마련되었고, 고넬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준비가 가이사라에 마련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디옥의 복음화와 선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행11:24). 디모데는 목회자 이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만큼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할 인성과 사랑이 많은 “착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빌2:20).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착하고 선하고 인정과 사랑이 많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딤후4:9). “저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딤후4:21).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유창한 설교보다 정통 신학보다 뜨거운 체함보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상처 입은 자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착하고 선한 인성과 사랑을 지닌 “착함”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착함”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자유주의라고 무식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착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박사가님! 죽었을 때 한국교회와 사회는 작은 예수가 죽었다고 침울했고, 환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훈 목사님은 참 목자를 잃은 텅 빈 세상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눅23:34). 이 보다 놀라운 “착함”은 이 세상과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착함”입니다.

성경은 “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도 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을 기록하지만 사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한 것은 이름없는 사람들의 “착한” 삶이었을

니다. 한국교회에 설교와 신학과 은혜 체험이 풍성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너무 풍성하고 신학이 너무 풍성하고 은혜 체험이 너무 풍성한 나머지 말만 잘 하게 되었고 감정만이 풍부하게 되었고 비판만 잘 하는 무정한 이기주의자들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동안 은혜로운 설교를 너무 사모해왔고 깊은 신학을 너무 동경해왔고 은혜 체험을 너무 사모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저는 설교는 은이고 신학은 동이고 이적은 철이고 프로그램은 흙이고 주님 닮으려는 “착한” 삶만이 금이란 말을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와 이기풍 목사님과 윤환에 사모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정영순 사모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환경직 목사님과 장거리 박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둘째 특성은 “착함”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주변성”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자기 중심 또는 민족 중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은 한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과 유교라는 사회 문화 종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개인 중심적이고 가문 중심적이고 지역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이미 “주변 지향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그의 관심을 자기 본토나 아비 집에 두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창12:3)에게 두도록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의 사명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회복에 머물지 않고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사49:6) 하는데 두도록 했습니다. 요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관심이 이스라엘이 아닌 앗수르의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네가 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를!”

내가 아까는 것이 아찌 함당치 아니냐?”(온4:11). 니느웨는 그 당시 “악의 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악의 축”이었던 애굽과도 이스라엘이 교류하고 함께 세상의 복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사19:23-

25).

신약의 복음도 분명히 “주변 지향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옴바와 가이사라와 안디옥을 통해 소 아시아와 마게도나 등 주변과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사회적으로는 중심에서 소외된 버림 받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사람은 저주 받았던 병자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 지라”(마8:3). “한 백부장이 나와와 간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라”(마8:10).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마8:16).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주변 세계로 향해 달려간 이방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행13:46).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물론 그의 자녀들을 향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는 “주변”과 “땅끝”과 “이방”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주변에서 신음하는 잃은 양들을 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사회, 인권 개혁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사랑을 품고 그저 주변과 이방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주변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들로 “주변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행23:11). 십자가 복음은 물론 부활 복음의 특성도 “주변 지향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의 특성 세 가지에 대해서 즉 “복음 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을 중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폴리갑 감독과 성 프랜시스와 토마스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과 최봉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환경직 목사님과 장거리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너무 높은 수준의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낮은 수준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너무나 주님 닮은 “복음 삼도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 주님 닮지 않은 “세속 삼도의 삶”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라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 년마다 한번씩 만 프랜시스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인류의 구원은 보장되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너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스테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폴리갑 감독과 성 프랜시스와 토마스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과 최봉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환경직 목사님과 장거리 박사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약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착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의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주변성”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테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폴리갑 감독과 성 프랜시스와 토마스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과 최봉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환경직 목사님과 장거리 박사님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몇 십 분의 일이라도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기쁨으로 비상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저화가 믿겠습니다. 전하는 이가 있어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저의 삶을 묶어 당신의 말씀 위에 띄우고 기쁨으로 비상하는 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기쁜 일입니다.

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절박한 순간에도 말씀이 먼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배가 고파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가난해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저를 불러주옵소서. 믿음이 귀중하지만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

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바른 관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비추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훈계하

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딤후4:5)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들겠습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옥토이어도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싹이 나지 못합니다. 보배로운 씨앗을 소중하게 받아 아로새기어 새로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을 알게 하옵소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 되심을 알아 역사의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

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비로소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성을 고백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묵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영사자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미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글: 이일스펙스 | 그림: 배민지 | 출판: 이룸재 | 2014년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려지고, 뒤틀렸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아티스트 이룸재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734-7334 **이마루**